

중세 말 사상 속의 스페인 유대인과 개종자: 피의 순수성 법령과 후안 데 토르케마다
『논고』

서론: 스페인의 유대인 문제

유대인은 유럽의 주변적인 소수집단들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스페인의 유대인 문제는 15세기 말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1492년, 가톨릭 왕들인 페르난도 2세와 이사벨 1세는 스페인에서 유대인의 추방을 공포하였다. 이 후 공식적으로 유대인은 스페인에 거주하지 않았다. 유대인은 이주나 개종을 강요당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와 그 후손들은 콘베르소들(conversos)로 불렸다.

이들 콘베르소는 1492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중세 시대에 존재했다. 비록 그들은 기독교도가 되어 기독교 사회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동화하지 못했다. 비밀리에 유대교 의식을 행한다는 혐의를 받은 콘베르소들은 새로운 주변 집단이 되어 구 기독교인들과 구별되었다. 콘베르소들을 유대인으로 여기는 담론이 존재했다. 비록 유대인은 근대 초 스페인에서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재(absent) 유대인”은 역설적으로 계속 존재했다. 이러한 “부재 유대인”은 적어도 몇가지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스페인의 유대인 문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콘베르소에 대한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하나의 현상은 피의 순수성 법령이다. 이것은 콘베르소들을 유대적 피를 이유로 배제할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1449년 툴레도에서 발포된 법규(Sentencia-Estatuto)에서 비롯되었다. 15세기 후반과 이후 시기에 유사한 법령이 각종 단체에 도입했다. 당연히 정통 신학에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법령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반대는 각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체로 예단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비판한다. 우선 유대인과 콘베르소의 일반적인 상황을 개관하고 피의 순수성 법령들의 추이와 그것들을 둘러싼 논의를 파악하고 나서 그 법령에 반대하는 중세 후기의 한 텍스트를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반대의 성격을 검토할 것이다.

I 유대인에서 콘베르소로

중세 스페인에서 세 종교-민족적 집단, 즉 기독교인, 무슬림과 유대인이 공존하였다. 하지만 이 공존은 종종 이상화된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무슬림과 유대인은 기독교 왕들의 통치하에서 예속민(vassals)으로 인정될 뿐이었다. 예를 들어, 알폰소 10세 치세에 편찬된 7부법전과 일부 도시 조례는 그들의 직업을 제한했다. 이러한 제한은 기독교도와 유대인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유대인은 유대교를 고백하고 특정 법과 교육에 의해 자치권을 유지하도록 인정받은 공동체(aljamas)에 거주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부르고스, 세비야, 코르도바와 툴레도에 있었다. 공존은 신앙 공동체 간의 명확한 경계 위에 형성되었다.

하지만 기독교도와 유대인 사이의 충돌은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첫째로 충돌은 종교적인 반목에 의거했다. 14세기 후반 이후, 기독교인들의 유대인 인식은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기독교도들은 유대인을 감독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킬 필요

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점차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부 신학자들은 유대인의 개종 가능성을 끈기 있게 설교하였다. 그러나 다른 신학자들은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숙명적인 차이를 부추겼으며, 그러한 선동이 때때로 유대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물론 이러한 반목은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층들은 분명 사회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존재하였다. 이 시기의 성격은 역병, 불황, 사회적 불안과 왕권의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불안으로 규정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의 불만은 종종 유대인에 대한 적의로 바뀌었다.

중세 후기 스페인의 유대인의 상황은 14세기 말에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1391년 유대인에 대한 폭력의 발생은 반도의 전역의 대학살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 시점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했다. 도밍게스 오르티스의 정의에 따르면, 이로써 사회 계급으로서 콘베르소들이 출현하였다. 콘베르소들은 신기독교인으로서 성직을 포함하여 일부 공직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기독교 사회의 이등 위치에 오른 결과 콘베르소들과 구기독교인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나타났다. 15세기와 그 이후 시기에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었다.

사회경제적인 불만이 갈등의 기반을 형성했다. 따라서 집단 개종과 콘베르소들의 출현 이후 층들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콘베르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종교였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종이 신앙 공동체 사이의 경계의 횡단을 의미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그것은 공동체 사이의 사회경제적 경계의 완전한 횡단은 아니었다. 유대인의 사회적 망에 있는 오랜 관계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콘베르소들은 유대 공동체(aljamas)에서 유대교도와 함께 삶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일부 구기독교인들은 콘베르소들이 여전히 비밀리에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졌다. 콘베르소들이 참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B. 네타냐후는 대다수 콘베르소들이 참된 기독교도라고 보았다. 그런가 하면 H. 베이나르트(Beinart)는 그들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내적 신앙에 상관 없이 일부 구기독교인들은 콘베르소들을 유대교도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의혹이 사회적 혼란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1480년에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는 비밀 유대교도(judaizantes)를 색출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것은 중세 유럽의 종교재판소와는 다른 새로운 기구였다(스페인에서 중세 종교재판소는 아라곤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초기에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전적으로 콘베르소들을 겨냥했다. 근대 초에 이 기구는 작동했으나 콘베르소들을 판가름하기 위한 법규는 중세에 형성된 유대인 이미지에 기반했다. 풍자적인 팸플릿인 Libro del Alboraique에 나타나듯이, 콘베르소들을 유대교도로 보는 인식은 사람들 사이에 지속했다.

이런 식으로 스페인의 콘베르소들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유대교도를 둘러싼 문제의 연장선에 있었다.

II. 피의 순수성 법령들과 논의

피의 순수성 법령들은 이런 상황에서 형성되었다. 이 법령들은 여러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으로 확립되었고, “유대교도, 무슬림, 이단의 피가 아닌” 구기독교인들만이 그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요건은 콘베르소들을 실제 신앙이 아닌, 혈통에 따라

기독교 사회에서 배제함을 의미했다. 이것이 이전의 법령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것이 국왕이나 교회 등 외부의 힘이 아니라 각 기관의 주도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최초의 법령은 1449년에 톨레도의 반란 과정에서 제정된 Sentencia-Estatuto였다. 이 법령은 콘베르소들이 톨레도와 그 주변 지역의 공직과 성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도시가 고귀하기 때문이며 고귀한 기독교도의 피를 가진 구기독교인들이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했다. 게다가 반란자들은 다음의 이유에서 콘베르소들을 비난했다. 즉 콘베르소들은 여전히 비밀리에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어 참된 기독교인들이 아니며, 구기독교인들로부터 부를 착취하였으며, 그들의 조상이 믿을 수 없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후 비슷한 담론의 다른 법령들이 시의회, 참사회, 수도회, 대학, 조합, 길드 등 여러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그것들은 구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존속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는 이 법령들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사회사의 분야에서 역사가들은 권력 투쟁이 쉽게 나타나는 시의회나 참사회의 사례들을 다루어왔다. 즉 그런 조직에서 승진을 원하는 자들은 경쟁자를 콘베르소로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한 법령(Sentencia-Estatuto)은 권력 투쟁에서 나왔다. 15세기 전반기에 국왕에 맞선 민중 운동이 카스티야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들 운동은 민중의 불만에 의거했으며 종종 도시 당국들과 연계되었다. 1449년의 톨레도 반란은 이러한 운동으로 자리매김된다. 이 반란의 초기 이유는 카스티야 국왕 후안 2세의 총신인 알바로 데 루나가 톨레도에 특별세를 요구한 것이었다. 이 과세는 이 도시의 특권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톨레도의 사람들은 봉기하였다. 이 반란은 콘베르소들로 구성된 과두지배세력(oligarchs)에 맞선 더 광범위한 반란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 반란은 “종교적 적대에 의해 가려진 사회 투쟁”이었다.

하지만 종교적인 반목의 요소는 무시할 수 없다. 법령을 떠받친 것은 콘베르소들에 대한 종교적 혐의였다. 게다가 이 법령은 이후의 법령들이 참고로 한 일종의 전범으로서 영향력이 있었다. 이 법령들은 사회적 이해 관계를 감추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수사학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통할 수 있는 망탈리데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개종은 신앙 공동체 간의 경계의 횡단을 의미했으나 이 경계는 종교뿐 아니라 피라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었다. 설령 유대인이 신앙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되었을 지라도 여전히 피로써 유대인으로 간주되었다. 피의 순수성이 제기하는 문제는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경계가 어디에 설정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피의 순수성 논의의 담론을 분석해야 한다.

법령들의 기원이 된 Sentencia-Estatuto는 동시에 논쟁의 원천이 되었다. Sentencia-Estatuto에 대해 부르고스 주교인 알론소 데 카르타헤나, 쿠엔카 주교 로페 데 바리엔토스, 법학자 알폰소 디아스 데 몬탈보 등 여러 명사들이 반대했다. 이후 법령의 확산 과정은 논쟁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16세기 말 이전에는 피의 순수성은 외부의 개입 없이 각 조직의 내부 문제에 불과했다. 주요 반대자들은 도미니코회와 프란체스코회의 수도사들이었고 그들은 법령들이 자신들의 수도회와 여타 기관에 도입될 때 반대했다. 쟁점은 종교와 피의 관계였다. 논쟁자들은 피에 의해 기독교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확실히 17세기 초에 이 논쟁들은 열매를 맺었다. 1599년에 있는 프란체스코회 수도회의 아구스틴 살루시오의 제안과 뒤이은 코르테스에서의 토론에 힘입어 1623년 국왕 펠리페 3세는 법령들의 남용을 억제하는 칙령을 내렸다. 이러한 제한은 결국 실패했지만, 피의 순수

성의 문제는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역사서술에서 이 과정은 직선적이고 연속적인 것으로 가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정은 법령들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사이의 이분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후자는 관용파(tolerationists)로 분류되기도 한다. H. Kamen은 “관용 정신”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피의 순수성 사상은 결코 절대적이거나 지배적인 강박 관념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그는 이 정신의 싹을 Sentencia - Estatuto에 대한 반대에서 찾는다. 피의 순수성에 대한 반대는 마치 완전한 합의가 있는 것처럼 간주되었다. 이 관점을 비판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하나의 텍스트가 사례로 이용된다.

III. 후안 데 토르케마다와 그의 논고

1449년 이 문제를 논박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자는 추기경 후안 데 토르케마다였다. 톨레도의 반란 직후 그는 카스티야 왕 후안 2세를 만나 이 사안의 처리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그 후 그는 『논고』(Tractatus)를 저술하여 교황 니콜라스 5세에게 헌정했다. 이 저작은 톨레도의 반란뿐 아니라 신·구기독교도 간의 차별을 공박하였다. 교황은 세 개의 교서를 내려 톨레도의 반란자들과 논고는 Sentencia - Estatuto를 비난하였다. 게다가 1449년의 사건 이후 이 결정은 피의 순수성의 다른 법령들에 대한 이후의 거의 모든 반대에서 권위적인 입장으로 간주되곤 했다. 그런 이유로 토르케마다의 텍스트 역시 Sentencia - Estatuto와 여타 법령들에 대한 반대의 전형으로 자리매김되어 왔으며 많은 역사가들이 이를 다루었다.

먼저 후안 데 토르케마다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1388년 바야돌리드에서 유대인 개종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1404년 도미니코 수도회에 들어갔으며, 바야돌리드와 살라망카의 수도원에서 수학한 후 1424~25년에 파리에 거주했으며 신학 학위를 획득했다. 그후 수도원장, 주교 등을 지냈고 1439년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기독교 세계의 격변기를 살았던 토르케마다는 콘스탄츠, 바젤, 페라라-피렌체 등 세 공의회에 참석했다. 대분열 이후 열린 이 공의회들은 기독교권의 통일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공의회수위설과 교황중심주의 사이의 충돌에서 그는 교황이 어떠한 공의회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신앙의 옹호자”란 칭호를 받았다. 그는 교회 정치가뿐만 아니라 사상가로서 여러 권의 저작을 남겼다. 그가 보기에 콘베르소들과 그들에 대한 차별 문제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기독교권 전체의 문제였다.

토르케마다의 『논고』는 머리말과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에서 저술에 대한 그의 입장과 모티브가 나타나 있는데, 그는 성서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고통을 받는 유대인들을 묘사하며 이것들이 톨레도의 콘베르소들의 실상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는 톨레도의 반란자들을 창세기에 유대인의 적으로 묘사된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비교한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텍스트를 저술할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제1장에서 그는 Sentencia-Estatuto를 제정하기 위한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그는 7가지의 이유를 들어 톨레도의 반란자들을 범죄자요 반역자로 비난한다. 게다가 그는 그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적이고 신성모독적이며 악마 같은 야심 탓에 하느님의 적이라고 단언한다.

제2장에서 12장까지는 Sentencia-Estatuto 자체의 두 가지 원리를 반박한다. 제2장에서는 제1원리, 즉 악한 피가 사람을 잘못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논박한다. 제3장에서 제6

장까지는 제2원리, 즉 유대인은 처음부터 신실치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박한다. 제7장에서 제11장까지는 Sentencia-Estatuto가 일부 성서 구절들을 전거로 이용한다(시편 94: 10-11, 마태오 15: 8, 신명기 32: 20, 마태오 16: 4, 디도서 1: 10). 그는 이것들이 잘못된 해석이며 그 입안자들이 이단적이라고 비난한다. 제12장에서는 Sentencia-Estatuto의 논리는 불의하다고 결론짓는다.

제13장부터는 콘베르소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설교로 바뀐다. 제13장에서는 콘베르소들은 비난받거나 판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제14장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신비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5장과 제16장에서 그는 교회법과 민법을 끌어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IV. 기독교 세계의 “관용”

토르케마다의 이 담론에 대한 견해는 두 개의 대립적인 진영으로 나뉘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담론을 콘베르소로서의 그의 출생 때문으로 생각했다. 교회사의 영역에서 이 텍스트는 광신적 열정의 산물로 분류되거나 무시되기까지 했다. 그들의 해석은 토르케마다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썼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당대 기독교권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었다. 그의 텍스트는 당대 유대인들과 콘베르소들에 대한 견해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반대로 다른 역사가들은 그를 관용 정신의 정수로 여겼다. 예컨대, E. Benito Ruano는 토르케마다를 종교적 관용의 선구자로, 그의 『논고』를 “종교적 관용의 마그나 카르타”로 평가한다.

“관용”의 개념은 각 개인에게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렵다. 물론 양심이나 종교의 자유로서의 이 개념의 의미는 근대의 구성물이다. 그 시기에 그것은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주류 집단의 소극적인 승인을 의미했다. 즉 콘베르소들의 문제라는 맥락에서 우리는 이 개념을 콘베르소들에 대한 구기독교인들의 옹호로 사용하였다. 이 도식은 또한 법령들의 연구와 그 논의에도 적용되었다. 어려운 점은 우리가 콘베르소들의 보호에 대한 모든 담론을 “관용”의 기둥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퇴행적인 것이다.

토르케마다는 콘베르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했으며 그의 텍스트가 교황의 교서와 함께 후대의 “관용과”에 의해 전거로 인용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담론은 그들의 담론과는 분명히 다르다. “관용과”가 보기에 유대인의 피는 세례와 기독교 의식으로 정화되어야 하는,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요소였다. 비록 그들은 콘베르소들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에게 콘베르소들은 마지못해 용인된 기독교인들이었다. “관용과”가 주장하는 것은 콘베르소들을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1479년 스페인 왕국이 근대 국가로 형성된 이후 “기독교 공동체”는 “가톨릭 왕국(Monarquía Católica)”와 동일했다. 이 왕국은 단일한 종교와 단일한 민족의 국가(res publica)로 해석되었다. 스페인의 “가톨릭 왕”은 머리와 동일시되었고, 신민은 몸으로서 스페인인일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어야 했다. 여기서 콘베르소들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하려는 “관용과”의 담론은 왕국의 신민으로서의 승인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것의[스페인 왕국]의 형성 이전에 콘베르소들의 보호에 대한 담론은 달랐다.

『논고』의 제2장에서 토르케마다는 성서, 교회법, 교회 학자들의 견해, 공의회들의 결정 사항들을 인용한다. 이런 근거에서 아버지가 죄를 저질러도 아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다. 따라서 아버지가 악한 피를 가졌다고 해서 아들이 잘못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변호하는 대상은 콘베르소들이다. 그의 생각에 콘베르소들은 신앙의 측면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다. 하지만 제3장에서 제6장까지 그의 변호는 역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에게 향한다. 콘베르소들을 변호하기 위해 그는 그들의 선조가 결코 믿을 수 없는 종족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콘베르소들이 피의 측면에서 유대인임을 부인하지 않는다(그는 머리말에서 콘베르소들을 유대인으로 간주했다). 게다가 그는 그들의 유대적 피를 깔보지 않는다. 제3장에서 그는 유대인들은 성서의 곳곳에서 하느님이 사랑하고 고귀하게 여긴 종족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제4장에서 그는 고귀한 육신을 지닌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따라서 유대 민족은 가장 고귀한 족속이라고 논한다. 제5장에서 그는 유대인들이 신의 선민이라고 단언한다. 제6장에서는 예수와 그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유대인이었음을 밝힌다.

가장 특이한 주장은 제13장과 제14장에 나온다. 그는 유대교를 그릇된 교의라고 비난한다. 이 점에서 그는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잘못에 빠져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오류는 그들이 반드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는 그들의 개종 가능성에 대해 낙관했다. 더욱이 그는 콘베르소들이 기독교 세계의 통일성을 완수하는데 사용되는 축이 되어야 하며 또한 다른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유용한 모델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더 이상 콘베르소들에 대한 소극적인 용인이 아니다. 그에게 콘베르소들은 오히려 기독교 세계를 위한 바람직한 기독교인들이며 그들의 유대적 피는 적극적인 요소였다.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독교 세계는 여러 선조를 둔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를 부정하지 않은 채 기독교를 신봉하는 공동체였다. 그는 종교와 민족의 일치를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르케마다의 사고는 근대 초 “관용과”와 동일시될 수 없으며 근대 초 국가의 형성의 과도기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결론

토르케마다의 텍스트는 콘베르소들에 대한 담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세 후기 스페인에서 그들을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통합시키려는 생각은 스페인 왕국의 형성 이후 보다는 온건했다. 토르케마다의 텍스트가 제시하는 것은 유대인과 콘베르소를 정의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다. J. C. 콘트레라스는 스페인 유대인의 역사서술은 두가지 계열, 즉 “스페인의 유대인 역사”와 “유대인에 관한 스페인사”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자의 경우 일부 저자들은 유대 민족의 변하지 않는 연속성을 강조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스페인 민족의 존재를 가정했다. 그는 두 시각을 민족주의적 편견으로 비판한다. 콘베르소들의 역사 서술에서 그러한 관점이 그들에 대한 역사 기술의 장애였다. 한편으로 콘베르소들은 유대 민족의 한 형태로, 다른 한편으로 스페인 민족 내의 주변 집단으로 여겨졌다. 토르케마다의 텍스트는 콘베르소들을 종교로는 기독교인으로 민족으로는 유대인으로 보는 이중적 인식을 확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어떠한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들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